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림의교회

> 들어가며

2016년 여름, 당시에도 한국 교회는 목청 높여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다음 세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존하는 젊은 세대'가 보였다. 지금 곁에 있는 그들을 알아버리는 순간,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치열한 고민 끝에 다다른 종착지가 '개혁'이었다.

내가 꿈꾼 교회는 본질에 집중한 단순한 교회이면서 이 시대의 분법에 맞는 교회였다. 그러하여 교회는 원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로는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사림의교회'의 시작이었다. 회의실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출발했으나, 사림의교회의 목회 철학이 온라인 설교와 글을 통해 공감과 동의를 얻으면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 가족이 되었다.

◆ 성장의 역설



개혁 3년 차에 청장년 출석 인원이 50명을 넘어섬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다. 코로나 제한 조치가 풀린 뒤에는 새로운 성도들의 유입이 빠르게 늘었고, 개혁 5년 차인 2021년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했다. 목회에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청장년 출석 성도도 1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은 도리어 우리 공동체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전까지 사림의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에 가까웠다. 마음은 여전히 '슬로저치'인데, 상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가족이 붙은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돌아보면, 당시 우리에게서 빠진 두 가지 치명적 약점이 존재했다.

첫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내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교회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도 방지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 중심적 목회를 경계해 온 탓에, 건강한 양육과 영적 훈련조차 '조직 유지용 프로그램'이라는 지독한 편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주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그 이상의 거룩한 진보는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기형적인 '목회자 의존 구조'를 내 손으로 만들고 있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모되기보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양의 역할과 영적 부양을 대부분 내가 감당했다.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열정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공동체가 성장하자 곧 한계가 드러났다. 돌봄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그들을 함께 품을 목양 동역자들은



길라내지 못했던 것이다.

영적 돌봄과 목양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그들을 함께 만나주고 돌봄 목양 동역자들은 길라내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유입은 곧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까지 목회의 유기적 역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목회자였다.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돌보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기체적 변화에 맞는 교회의 구조가 필요함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다만 사람을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은 정무했다. 나는 그제야 '사람을 돌보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다시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설교는 공동체의 전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목회의 중심축이다. 하지만 설교로만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 회중석에 앉아 있는 이들의 영적 상태와 내면의 깊이가 저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 영적 단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과정을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회심이 필요한 단계'부터 시작해, 4개의 영적 단계로 선명하게 정돈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회심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미 100명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더군다나 내가 선택한 양육 방식은 1대1 방식이었기에, "과연 언제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일대일로 양육해 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막막함이 앞섰다.

그럼에도 다른 지름길은 없었다. 내가 먼저 모든 양육 과

정의 첫 번째 '인도자'가 되어, 매일 성도들을 1대1로 마주하며 양육을 시작했다.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신앙의 깊은 부분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채워주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세워갔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해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 되었다.

개인 양육 과정의 진정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이어졌다. 사실 사람들은 소그룹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다. 관계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험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강제적인 제도로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오직 양육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깊이만큼 소그룹의 깊이도 함께 자라난다.

우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가지 소그룹 모델을 차례로 적용하며 우리 공동체에 맞는 형태를 찾았다. 강단과 삶을 통해 그 필요성을 꾸준히 나누고 실제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그룹은 점차 깊고 단단해졌다. 이러한 치열한 대가 지불과 오랜 입상의 거름을 거쳐, 오늘날 사림의교회를 든든히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의 건강한 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 첫째, 1대1 개인 양육이다. 참된 회심과 명확한 복음의 이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단단한 뼈대를 정립하는 맞춤형 4단계 양육 과정을 가동하고 있다.

● 둘째, 에클레시아 소그룹이다. 성도들은 에클레시아 안에서 가면을 벗고 서로를 깊이 책임지고 목양하며 성장한다. 우리는 소그룹을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의 교회'로 이해한다.

● 셋째, 연약가족이다. 개인 양육 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연약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연약가족은 사림의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비전에 가까이 자신의 생을 걸겠다고 손잡은 핵심 '비전 코어(Vision Core)'들이다. 바로 이 연약가족 안에서 공동체를 섬길 '사역자' 리더가 세워지며, 전체 연약



가족이 이들의 든든한 영적 지지대가 되어 함께 동역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사림의교회에는 28명의 사역자가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있다. 건강하게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제 어느덧 250명이 함께하는 사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양육의 모든 과정과 소그룹 목양 또한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성도는 교회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직접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주체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곧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확신이 빛어낸 결과이다.

> 글을 맺으며



사림의교회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작되고 걸어오면서 확인한 것은 명확하다.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결국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림의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영적 성장은 교역자 몇 사람의 책임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온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어 한 영혼의 아픔을 함께 품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룩한 동역에 가까이 참여한다.

여러 통제는 한국 교회의 수적 감소를 전망한다. 그러나 교회의 전체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각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결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강소형 교회의 가능성도 여기에 있다. 규모가 작더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품고, 성도를 종교 사역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인 동역자로 세울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를 충만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 깊이 고백한다. 복음이 실제로 사람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언제나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강정규 목사

사림의교회

2026 THE WAY

THE WAY

JOH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성령 연합 수련회.

2026년
8월 15일 (토)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관

주최
예성총회·성령

대상
예성 청년 1,200명(선착순)

등록 접수
회비 ₩30,000

등록 접수 인원
티셔츠 제공

주최
청년부 및 성령 사역위원회

등록 접수 마감일 8/5

문의처
010-4372-2564 010-3691-7871

회비 납입 기준



2026 THE WAY CONFERENCE